

허균의 불교적 사유의 형성과 〈山狗偈〉

金豊起 (강원대)

1. 들어가며
2. 허균의 불교적 사유의 형성
3. <山狗偈>에 나타나는 주체와 타자의 혼효 양상
 - 1) 佞佛事件에 관한 허균의 기록들
 - 2) <山狗偈>에 나타난 불교 사유와 시선의 흔들림
4. 마무리

1. 들어가며

허균(1569-1618)의 <산구계(山狗偈)>는 여러 측면에서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승려가 아닌 속인의 문집에 ‘계(偈)’의 제목과 형식을 빌려서 창작한 드문 작품인 <산구계>는, 산에서 살고 있는 개(山狗)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우의적(寓意的) 창작 방법으로 지어진 이 작품은 창작 시기나 의도가 별도로 표기되지도 않았으며, 이 작품만으로는 작중 화자와 ‘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쓰인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고전문학 연구에서 허균의 위치는 매우 크고 무겁다. 그에 대한 관심은 고전문학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는 동안 허균의 불교적 태도에 대한 관심도 다각도로 표출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허균이 겪은 몇 차례 파직 중에는 ‘佞佛’이 이유가 된 적도 있기 때문이다. 유교 사회에서 불교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 삼척부사의 신분으로 불상에 배례를 하고 염불을 했다는 소문은 탄핵에 치명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그것이 소문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상황이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관직에 있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지식인들은 허균이 영불 행위를 했다고 믿었으며, 그 믿음에 근거하여 비난하였다.

허균의 불교적 태도를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를 흔치 않다.¹⁾ 그의 도가적 풍모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불교적 태도에 대한 관심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불교적 환경을 보여주는 허균의 글들이 몇 편 있을 뿐, 불교를 정면으로 다룬 글이 별로 없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허균의 불교적 태도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는 한편 자아와 타자의 합일과 균열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주된 대상 작품은 <산구계>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허균의 불교적 성향을 가진 시문을 다양하게 이용할 것이다.

1) 김재욱의 <허균의 불교시 연구>(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외에는 허균의 작품을 불교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 업적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2. 허균의 불교적 사유의 형성

어떤 계기로 허균이 불교를 접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20대 초반 이전의 글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추정은 더욱 힘들다. 지금으로서는 ‘蛟山臆記詩’에 수록되어 있는 시편들과, 그의 산문에 단편적으로 기록된 자료들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임진왜란을 맞아 그가 피난처로 택한 곳은 강원도 강릉이다. 1592년부터 그는 외가가 있는 沙川 愛日堂에 머무르면서 盤谷書院에서 글을 읽거나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세월을 보낸다. 이듬해 양양 낙산사에서 그곳의 여러 스님들과 시를 주고받거나 杜詩를 읽는다. <성소부부고>에 수록되어 있는 ‘교산역기시’의 작품들은 이 시기에 지어진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자신이 지은 시를 주기적으로 정리하였던 탓에 그의 시는 여러 묶음으로 편집되어 문집에 수록된다. 어린 시절의 시편 역시 이런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친구들이 돌려보다가 잃어버리거나 아이들이 보다가 망가뜨렸다고 했다.²⁾ 이런 사정이 안타까워서 이전의 작품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을 모아 편찬한 것이 ‘교산역기시’에 수록된 것들이다.

‘교산역기시’의 시편들 중에서 특히 낙산사 스님들과 주고받은 작품들에서 우리는 허균의 불교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길게 쓰여진 이 작품들은 시를 주는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므로 禪談이 깊은 수준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다. 불교적 시편의 내용들은 크게 두 부류다. 하나는 불교적 분위기를 통한 마음의 안정을 노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려한 색채감과 불교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清坐香臺萬慮空	향대에 맑게 앉으니 온갖 생각 텅비는데
風箏無語閉花宮	풍경 소리 고요하고 화궁은 닫혀있다.
雲收疊嶂千層碧	구름 걷힌 첩첩 산봉 천 층으로 푸르고
霜落疏林一半紅	서리 내린 성긴 숲 반나마 붉었다.
病後參禪得趣	병 뒤에 참선하니 禪趣 얻겠고
愁來覓句未全工	시름 속에 짓귀 찾으니 온전치가 않아라.
扶桑浴日看還厭	부상에 뜨는 해 보기에다 싫증나서
臥聽濤聲撼地雄	땅 울리는 웅장한 파도 소리 누워서 듣는다.

(贈輝上人, 교산역기시)

禪趣詩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허균의 문집에서 상당수 발견된다. 불교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평온한 심정을 표현하는 작품은 허균만의 특징이라 할 수 없다. 근대 이전 지식인들의 문집에서 선취시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허균의 초기 시편에서 불교적 풍취를 드러내는 작품의 한 경향으로 위와 같은 예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우리의 흥미를 더 자극하는 것은 문체 부분이다. 교산역기시에 수록된 불교적 작품은 대부분 장편이거나 여러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승평(昇平)한 때에 북리집(北里集)·삼궁뢰창록(蟾宮酬唱錄)이 있었는데 난리통에 소실되어 버리고 관동에 와서 감호집(鑑湖集)을 지었는데, 친구들이 돌려보내 잃어버리고 금문잡고(金門雜稿) 한 책은 아이들이 보다가 망가뜨려 버렸으니, 수염을 꼬부러가며 예를 무진 쓴 것들이 거의 다 유실된 셈이다.”(허균, ‘교산역기시’ 서문, <성소부부고> 권2 /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이 논문에 인용된 허균의 글은 특별히 표기된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문집총간 제74권>(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과 <국역 성소부부고>(민족문화추진회), <누추한 내 방 : 허균 산문집>(김풍기 편역, 태학사, 2003) 등을 인용하였다. 번역은 필자가 다시 하거나 수정, 보완하였다.

乾闥婆王鼓似雷 건달과왕 우레처럼 북을 치니
 靈山會罷乘龍回 영산회 끝내고 용을 타고 돌아온다.
 不向青城見菩賢 청성을 향하여 보현보살 뵈지 않고
 不訪文殊遊五臺 문수보살 찾아가 오대산에서 노닐지 않네.
 圓通住在七寶界 원통관음 머무시는 칠보의 세계
 洛迦一脈移東海 낙가산 한 줄기가 동해로 옮겨왔다.
 拜獻天樂陳岳宮 천악을 헌상하여 바위 궁전에 진설하니
 聲雜波濤響澎湃 파도 소리와 뒤섞여 그 소리 가득하다.
 人天來會百億軀 백억의 인간 천상 모두 와서 모이고
 六道雜遝群龍趨 육도가 뒤섞이고 못용이 달려간다.
 微風吹動寶羅網 보배 그물은 미풍에 흔들리고
 衆音微妙穿金衢 천상까지 울리는 미묘한 못 음악들.
 曼陀天女散花雨 만다라 천녀들은 꽃비를 흩뿌리고
 十二樂叉皆起舞 십이야차 모두들 일어나 춤을 춘다.
 笑掉法螺開桓因 웃으며 법라 흔들어 제석천 열자
 山河大地俱微塵 산하대지가 모두들 작은 먼지.
 霜鍾鯨吼八方震 우렁찬 종소리에 온 천지 흔들리고
 魚梵吟風來隱隱 바람결에 염불 소리 은은히 들려온다.
 百千種樂皆備俱 온갖 음악 모두 다 구비되어 있으니
 何必身遊佛國土 이 몸이 어찌 반드시 불국도에 노닐 필요 있으랴.
 琰魔天王在何處 염마천왕은 어디에 있는가
 善惡兩道聽我語 선과 악 두 갈래 길, 내 말을 들어보오.
 水晶戒珠盛魚囊 수정 계주는 어랑³⁾에 담고
 燃造燈旛超八苦 등불 켜고 깃발 들고 팔고를 넘어선다.
 天宮無間一念移 천궁은 틈이 없어 일념으로 옮기나니
 片言爲懺波羅夷 한 조각 말로도 무거운 죄 씻어진다.
 禪門宗旨只一乘 선문의 종지는 오직 일승뿐
 攝心不動如須彌 마음 수습하여 수미산처럼 움직이지 말 것이라.

(天龍奏樂引題雲上人軸, 교산역기시)

구절마다 불교의 용어가 등장하는 이 작품은, 靈山會上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천룡이 낙산사에 들러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圓通, 洛迦 등으로 낙산사라는 공간을 드러낸다. 낙산사는 전통적으로 관세음보살의 상주처로 알려져 있다. ‘원통’은 관음보살, 낙가는 관음보살이 머무는 산으로 강원도 낙산사가 위치한 산의 이름이기도 하다. 천룡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음악을 연주하자 천지만물과 온갖天人들이 기뻐서 춤을 춘다. 이 같은 광경은 일반적으로 불경에서 묘사되는 佛界의 형상과 상당 부분 닮아있다. 불계를 莊嚴하기 위하여 불경에서는 온갖 상상력을 동원한다. 허균의 이러한 묘사는 불경을 읽은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의 파직 중에서 허균이 불교와 관련하여 탄핵·과직된 것은 두 번이다. 한 번은 黃海都事로 근무

3) 魚籃. 魚籃觀音은 33관음 중의 한 분. 한 손에 어람을 들고 있다. 여기서의 魚囊은 ‘어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던 1599년의 일이고, 또 한 번은 삼척부사로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탄핵·과직된 1607년의 일이다. 두 번 모두 불교 때문에 사단이 난 것이지만, 허균의 불교에 대한 생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그렇다면 허균이 불경을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다음과 같은 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젊었을 때 일찍이 옛날의 문장 잘하는 사람을 사모하여 보지 않은 책이 없었으니, 아름답고 큼직한 불거리 또한 넉넉했다. 東坡가 《楞嚴經》을 읽고 나서 海外의 문장이 더욱 높고 오묘해졌고, 근래에 양명(陽明)과 형천(荊川)의 글도 모두 불경으로 인하여 깨달은 바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마음속으로 아름답게 생각했다. 그래서 자주 불교의 스님들을 따라 부처의 말을 기록한 경전을 구하여 읽어보니, 그 통달한 견식은 과연 골짜기가 툭 터지고 강둑이 무너져 물이 쏟아지는 듯하였고, 그 뜻을 매만지고 글을 부리는 것은 飛龍이 구름을 탄 듯하여 아득해서 도무지 형상해 낼 수가 없었으니, 진실로 글에 있어서는 귀신과 같았다. 근심스러울 때 그것을 읽으면 기뻐지고 지루할 때 읽으면 정신이 깨어났으니, 이것을 읽지 않았더라면 이 생을 거의 헛되이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해를 넘기기도 전에 1백여 상자의 불경을 모두 읽었다.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안정시키는 곳에서는 환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듯하여, 마음에 뒤엉겨있는 속세의 일들이 훌훌 그 묶인 것을 벗어나는 듯하였다. 문장 또한 그를 따라서 시원스레 도도하게 흘러나와서 끝이 없는 듯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옥이 마음에 얻은 것이 있다고 자부하여, 그 책을 아껴 보며 손에서 놓지 않았다.⁴⁾

이 글은 절친한 친구인 李楨이 枳達山으로 떠날 때 전송하면서 쓴 글이다. 1605년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부터 자신이 불교 경전을 읽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이 글은 이 무렵 그는 수안군수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정이 찾아와 한동안 함께 기거한다. 그 때 허균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미륵불, 관세음보살, 달마대사, 육조해능, 유마힐, 방거사 등 여러 불보살과 조사들의 그림을 이정에게 그리도록 하고 자신은 거기에 贊을 지어서 붙였다. 불교를 독실하게 믿는다고 해도 변명하기 어려운 이 같은 사정은 당연히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앞의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읽었던 많은 불교 경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당대 최고의 고승으로 꼽히던 西山休靜과 四溟惟政(1544-1610) 師弟와의 교류에서 우리는 허균의 불교 이력이 단순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四溟集序>에서 밝힌 것처럼 허균이 사명당을 만난 계기는 仲兄 許籟이 만들어주었다.⁵⁾ 1586년 여름에 허봉을 따라 봉은사로 갔을 때 두 사람은 처음 만난다. 허봉은 사명당의 작시 수준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였다. 허균에게 있어서 친형이자 스승의 역할을 하던 허봉의 평가는 사명당과의 친분을 더욱 가깝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그런데 허균이 불교 경전을 접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시문 창작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였다. 소동파, 왕양명, 唐順之 등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사상가들이 모두 불경을 읽으면서 문장과 깨달음을 모두 얻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문장 잘하는 사람을 사모’하여 그들의 독서 이력을 살폈고, 결국 불경을 읽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경을 읽어보니 ‘글에 있어서는 귀신과 같았’을 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생각이 너무도 특 트여서 불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이 인생을 헛되이 살았으리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다.

4) 余少日嘗慕古之爲文章者，於書無所不窺。其瑰瑋鉅麗之觀，亦已富矣。及聞東坡讀楞嚴而海外文尤極高妙，近世陽明王守仁荊川之文，皆因內典，有所覺悟，心竊艷之。亟從奚門士求所爲佛說契經者讀之，其達見果若峽決而河潰，其措意命辭，若飛龍乘雲，杳冥莫可形象，眞鬼神於文者哉。愁讀之而喜，倦讀之而醒，自謂不讀此，則幾虛度此生也。未逾年，閱盡百函，其明心定性處，朗然若有悟解，而俗事世累之絀於念者，脫然若去其繫。文又從而沛然滔滔，若不可涯者，竊自負有得於心，愛觀之不釋焉。(許籟，送李懶翁還枳山序，<惺所覆瓿藁> 卷4)

5) 頃在丙戌夏，不佞侍仲氏，舟泊奉恩寺。下有一衲，翩然來掛于艙頭，傾乎其身，肅乎其容，就坐而與之言，則辭簡而旨遠。不佞問其名，曰鍾峰惟政。師也心固艷之。夜宿梅堂，又出其詩，則鏗爾而清邵。仲氏亟加激賞，以爲可班於唐九僧也。時不佞尚少，雖未解見其妙處，而私識諸中，不敢忘焉。(許籟，四溟集序，<四溟大師集>：『韓國佛教全書』 제8책, 45쪽)

물론 이 글이 불교에 대한 일방적 예찬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불교의 이치를 주희의 이기론과 비교하면서 성리학의 우위로 결론을 내리고 있기는 하다. 허균은 이 글에서 불교와 유교의 미묘한 논리적 균열을 드러낸다. 이 문제는 뒤에서 <山狗偈>와 관련하여 논의할 것이겠지만, 이미 불교 경전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던 허균의 생각 속에서는 30대 이후 사상적 균열 혹은 혼효 현상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교산역기시’에 들어있는 시편으로 논의를 돌아가 보도록 하자. 허균의 진술처럼 이 시편들은 대체로 불교의 수사적 태도를 상당 부분 빌려와서 작품의 색깔을 만들어 낸다. 화려한 상상력은 창작의 자료로서의 불교 경전에서 빌려온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그 작품의 마지막에서는 ‘攝心不動’을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말하자면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흔들림이 없는 경지를 ‘攝心’이라고 한다면, 이는 결국 ‘一心’을 중시하는 선불교적 태도에 이어진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사명당의 스승인西山休靜이 知訥의 전통을 이어 받아 ‘一心’을 강조했으며, 그 입장은 사명당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⁶⁾ 이 문제를 중시한 것은 허균의 다른 글 여러 곳에서도 발견된다.

대사(大師)께서는 아직 선기(禪機)에 통달하지 못한 듯합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움직이지 않는 경지(攝心不動)를 어찌하여 반드시 온갖 인연을 깨끗이 없앤 뒤에야 이를 수 있겠습니까? 조정(朝廷)이나 저갯거리, 시장 바닥이나 마을 등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一念이 밝으면 일념의 깨달음이고 일념이 편안하게 쉬면 일념의 열반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고요하여 그 상태가 오래되면 밝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⁷⁾

1604년 2월에 작성된 이 편지에서 허균은 사명당의 깨달음 문제를 언급한다. 허균은 오직 ‘한 마음’[一念]을 밝힐 수만 있다면 꼭 산 속이 아니더라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이 편지의 맥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선부른 추정을 하기는 어렵다. 두 사람의 나이 차를 고려한다면 허균이 실제로 사명당에게 깨달음 문제를 충고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⁸⁾ 당시 사명당은 환갑을 넘긴 나이였으며, 1603년부터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수행을 하고 있었다. 1604년 1월, 스승인 서산대사의 입적 소식을 듣고 묘향산으로 가던 중에 어명을 받들고 서울로 돌아와 있던 시점에서 쓰여진 편지다. 이것은 아마도 나이를 핑계로 계속 산중으로 들어가려고만 하는 사명당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글로도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여기서도 허균은 ‘攝心不動’을 언급하고 있다. 교산역기시의 배경인 낙산사 시절부터 허균의 관심은 바로 ‘攝心不動’이었으며 ‘一心’을 관찰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3. <山狗偈>에 나타나는 주체와 타자의 혼효 양상

1) 佞佛事件에 관한 허균의 기록들

1607년 3월 허균은 삼척부사에 제수되어 임지로 출발한다. 삼척에 도착한 것은 5월이었는데, 도착한 지 13일만에 과직된다. <성소부부고>의 ‘眞珠藁’는 삼척에서 지은 시편을 모은 것이다. 그 시에는 부친 허엽이 고을살이를 하던 삼척에 자신이 다시 부임한 것에 대한 감개무량함을 토로한 것도 있다. 善政에 대한 기

6) 심계룡, <지눌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참조.

7) 師似未達禪機也。攝心不動，奚必淨盡諸緣，然後爲之？朝市塵鬧，隨處可做矣，吾聞一念照了，一念之菩提也，一念之宴食，一念之涅槃也。但願此心靜，久則明而已。(與松雲大師，<惺所覆頌藁> 권18)

8) 사명당의 私諡인 慈通弘濟尊者를 올린 사람도 허균이고, 해인사 홍제암에 세워진 사명당의 신도비문을 쓴 사람도 허균이다(허경진, ‘허균이 올린 사명대사 사시에 대하여’, <동국사학> 제42집, 동국사학회, 2006 참조). 게다가 사명당은 허균보다 25년 연장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허균이 사명당에게 훈계를 할 처지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로 부풀어있던 허균은 느닷없는 파직 소식에 놀랐던 것 같다. 그의 파직은 사헌부 장계에 의한 것이었는데, ‘불경을 암송하며 승려의 옷을 입고 불상을 모셔놓고 절을 한다’는 것이 탄핵 이유였다. 그는 자신의 파직 소식을 듣고 두 편의 시를 남겼다. 그 중 첫 번째 시는 다음과 같다.

久讀修多教	오래도록 불경을 읽어서
因無所住心	마음 머무르는 곳이 없다네.
周妻猶未遣	주옹의 처는 여전히 보내지 않았고
何肉更難禁	하운은 육식 금하기 더욱 어려웠다. ⁹⁾
已分青雲隔	이미 벼슬과는 멀리 떨어졌나니
寧愁白簡侵	파직 공문 왔다고 어찌 근심하라.
人生且安命	인생이란 천명을 편안히 받는 것
歸夢尙祇林	돌아가 부처 모시는 꿈이나 꾸리. ¹⁰⁾

이 시는 두 편의 연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작품이다. 두 번째 수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달려있다 : “이때 사헌부에서 郭再祐 公은 道教를 숭상하고 나는 불교를 숭상한다 하여 아울러 탄핵하였으며, 異端을 물리치기 위하여 狀啓罷職하였다. 그래서 결구에 언급한 것이다.”

허균의 주석이 정확하게 첫 번째 수와 관련이 되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치더라도, ‘聞罷官作’이라는 제목 아래 함께 지어진 작품의 주석이므로 당연히 당시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이 주석에 의하면 임진왜란에서 홍의장군으로 널리 알려진 광재우 역시 허균과 함께 탄핵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파직 소식을 듣고 오히려 전원으로 돌아가 불교도로서 살아가겠노라고 말한다. 파직 소식을 듣고 허균이 남긴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다는 것을 앞머리에 내세움으로써 자신은 이미 불교적 수양 덕분에 인간의 욕망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사명당에게 보내는 편지’를 연상시킨다. 자신이 비록 아내와 함께 살고 육식을 하는 속인의 처지지만,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벗어나 수행의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드러낸다. 파직이 되었다 해도 자신이 마음을 흔들지는 못한다. 벼슬에 대한 욕망이 존재한다면 그 소문은 자신에게 치명적이겠지만,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근심할 것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 시의 결론이 부처를 모시는 것을 꿈꾸는 것에 이르렀다는 점이 그리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허균이 불교에 대한 자신의 호의적 의견을 모든 글에서 당당히 밝히는 것은 아니다. 崔天健에게 보낸 편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조금 길지만 허균의 생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전문을 인용한다.

교외(郊外)에까지 나와 손목 잡고 이별해 주심은 정이 두텁고 간곡하였으며, 깨우쳐 주신 말씀은 생각사록 잡시라도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을에 도착한 13일째에 아전이 경보(京報)와 손수 쓰신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살펴본즉 5월 초 6일에 대관(臺官)의 탄핵으로 파면 당했으니 옷음이 터져 나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께서 이 고을을 맡으신 13일째에 교체되셨고, 제가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의 조물주(眞宰)의 장난일지언정 어찌 사람의 피로 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과 어긋나서 죽고 삶, 얻고 잃음을 마음 속에 개의할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차차로 노자(老子)·불자(佛者)의 유를 따라 거기에 의탁하여 스스

9) 周顛과 何胤을 지칭한다. 이들은 남북조 시대의 인물로, 모두 불교에 깊은 조예가 있었다. 그렇지만 주옹은 불교 때문에 아내를 버리지 않았고, 하운은 육식을 했다고 한다.

10) 허균, 파직(罷職) 소식을 듣고서, 眞珠藁, <성소부부고> 권2.

로 도피한 적이 오랜지라 저도 모르게 젖어들어 더욱 불경(佛經)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달견(達見)을 보면 골짜기가 갈라지고 강이 터지며 문자(文字)가 황홀하고 아득하여 나는 용이 구름을 타고 오르는 듯해서 꼬리·갈기·손톱·껍질을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아득하여 정신이 팔극(八極 팔방(八方)의 끝)의 밖에 노니는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아마 일생을 헛되게 보냈으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깊게 찾아내 연구하고 밑에 쌓인 온갖 것을 꿰뚫고 보니, 심성(心性)이 자연히 명료해져 마치 깨달음이 있는 듯하였습니다. 때때로 젊은 시절에 배웠던 사자(四子 / 孔子·曾子·子思·孟子)·염락(濂洛 / 周敦頤와 程子)의 서(書)를 꺼내어 불교에서 심성(心性)에 대하여 말했던 곳과 비교하였습니다. 이동(異同)의 견해와 진위(眞僞)가 서로 한계됨을 변석(辨析)하고 논변하니 제법 자신에게 언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서(著書)하여 그 의미를 밝혔는데, 이른바 영불(佞佛)이라고 했음은 반드시 이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세(當世)에서 거슬림 받았고, 여러 번 더러운 치욕으로 탄핵을 받았으나 털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로써 나의 신기를 손상하겠습니까? 더구나 곽공(郭公)과 더불어 함께 간(諫)하는 글에 들어 있으니, 이른바 이백(李白)·두보(杜甫)와 명성이 가지런한데 죽더라도 또 무엇을 한스러워하겠습니까. 형과 이대중(李大中)·성덕보(成德甫)가 처음에 나에게 좋은 벼슬길을 터주려 한 것은 아마 일의 기틀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아닐는지요. 원님 자리도 허용되지 않는데 옥당(玉堂)의 높은 지위가 허용되겠습니까? 오래지 않아 서울에 도착하면 손을 붙잡고 모두 아뢰 터이니, 다 말하지 못합니다.¹¹⁾

최천건은 정치적으로 허균에게는 최고의 지원자였다. 파직되어 실의에 빠져 있을 때에 다시 복직의 길을 열어주기도 했고,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삼척부사에서 파직된 뒤 허균을 다시 천거한 사람이 바로 최천건이었다.¹²⁾

허균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불교와 가까이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거론한다. 자신은 세상과 뜻이 어긋나서 항상 도피처가 필요했는데 불교가 바로 적당한 곳이었다는 점¹³⁾, 불경에 담긴 뜻이 뛰어나다는 점, 문장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이 바로 그 이유다. 그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이미 앞서 인용했던 <送李懶翁還枳粗山序>(〈惺所覆瓿藁〉 권4)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겹친다. 심지어 몇몇 부분에서는 이 글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구절이 다시 최분음에게 보내는 편지에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불교에 대한 허균의 태도가 미세하지만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신은 불교도가 아니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토로한다. 젊은 시절 읽었던 성리학 서적의 내용과 불교의 논리를 비교하는 공부를 했다는 그의 진술은 최천건에게 자신의 파직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삼척에서의 佞佛 사건이 전혀 사실무근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 탓인지, 최천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대단히 우회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자기 입장을 밝힌다. 이는 여러 해 전에 ‘임자승에게 보낸 편지’¹⁴⁾에

11) 郊外握別，情厚款勤，追思晤語，不敢暫忘。到州十三日，邸吏以京報及手札致之，則審於五月初六日，以臺劾見罷，不覺失笑。先君子宰是府十三日而遞，不肖又如是，此殆真宰擺弄，夫豈人謀？僕畸於世，以爲生死得喪，不足芥滯於心，稍從老佛者流，托以自延，既久不覺沈潛，尤好竺典。觀其達見，峽決河潰，而文字情愴宜，如飛龍乘雲，莫辨其尾鬣爪介，讀之渺然，神遊八極之表，常以謂不讀此書，幾乎虛過一生。參尋研究，洞盡底蘊，則心性自然明了，若有所悟。時取少所學四子濂洛之說，較其說心性處異同之見，眞僞相經，辨析論駁，頗有自得。至著書以明其趣，所謂佞佛，似必指此也。僕見忤當世，屢以污讎見劾，不動一毫，豈肯以此而傷吾神乎？況與郭公同入諫書，所謂李杜齊名，死又何恨者也？兄與大中德甫，初欲通顯路者，毋乃不料事機耶？黃綬不容，而乃許玉堂天上乎？未久當抵鞞下，握手以既，潦不盡。（答崔汾陰，惺所覆瓿藁 卷10）

12) “한낮에 갑자기 보내준 편지를 받고 보니, 시원한 바람이 상쾌하게 나의 답답한 가슴을 씻어주는 듯하였습니다. 사성(司成)에 의망(擬望)하신 것은 불교(佛敎)를 좋아했다는 비난을 씻게 하려는 뜻이었습니까?” (<최분음에게 보낸>, 성소부부고 권20). 이 부분은 1607년 6월, 영불사건 직후에 보낸 허균이 최천건에게 보낸 편지 중의 한 구절이다.

13) 이 같은 점은 허균이 쓴 <閒情錄序>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

14) “나는 불교를 믿지는 않네. 그 글을 좋아하여 읽으면서 한가한 시간을 메울 뿐이네. 몇 천호 정도의 고을을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데, 무척이 되기를 도모한단 말인가. 이걸 전혀 그렇지 않네. 그러나 권력에 아부하여 떠들어대기만을 잘하는 무식배에 비한다면 사실 조금은 우월하다고 할 것이네.” 僕非佞佛也。喜其文而讀之。以蔽閑也。圖數千戶郡。尙不能得。迺圖作佛耶。是甚不然然。比諸無稽小子只工附炎談議者。則果稍優矣。（與林子昇，성소부부고 권21）

서 보이는 바와 같은 입장과 비교할 때 선명하게 드러난다. 즉 자신은 불교도가 아니라는 점을 첫 문장으로 드러낸 뒤에 불경의 문장이 좋아서 시간 보내는 용도로 독서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밝힌 뒤, 권력에 아부하여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인물들보다는 불경을 읽으며 지내는 삶이 훨씬 낫다는 점을 말한다.

허균은 젊은 시절에 읽은 유교 경전 및 선현들의 글과 불경을 비교하여 그 異同眞僞를 따지는 글을 썼다고 했다. 실제로 이 같은 글을 썼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는 바로 이 글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앞서 실록 자료에서 본 것처럼 허균의 탄핵 내용은 그가 불경을 외고 승복을 입고 불상에 예를 올렸다는 구체적인 행위였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불교와 유교를 비교하는 글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허균 자신이 관직 진출에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최고의 후원자인 최천건이 허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명분을 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영불 사건으로 파직된 이듬해인 1608년의 글에서는 이와는 다른 면모를 발견한다. 海眼 스님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짐작케 한다.

그대는 완공(頑空)에 집착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견성(見性)하지 못하면 조사(祖師)의 밀어(密語)도 모두 외서(外書)가 되어버리고, 견성한다면 마구니의 설법과 여우의 참선도 모두 묘체(妙諦)가 됩니다. 집착하면 남과 나의 구별이 있게 되니, 경계하고 또 경계하시오. 하나의 선(善)이라도 게으르고 태만히 하는 데서는 얻지 못하리니, 힘써야 할 것이오.¹⁵⁾

頑空이란 空見에 빠져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無我 체험은 사물의 본질이 텅비었음(空)을 깨우쳐 준다. 그렇지만 만물이 텅 비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하다 보면 眞空妙有의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조사들이 갈파한 것이고, 수행자들이 언제나 경계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眞空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자는 당연히 見性을 해야 한다. 견성이 바로 진공을 깨닫는 일인 셈이다. 견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허균은 나와 남의 구별을 하지 말며, 작은 흠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충고를 한다. 일상 생활에서 실천해야만 하는 작은 문제들을 중시함으로써 깨달음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삼으라는 충고는, 수행이 결코 인간의 기본 조건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허균의 불교 공부의 본격적인 경지로 접어든 시기는 1602년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그는 西山休靜에게 네 통의 편지를 연거푸 보내어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은 황해도사 파직 사건 이후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밀고 나간 결과로 생각된다. 그것이 삼척에서의 영불사건로 변했을 것인데,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불교 경전을 읽고 마음 공부를 하는 생활을 끊지 않았던 것이다.

허균이 불교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표현하고 있는 불교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드러낸다. 불경을 읽지 않았다면 이 생을 헛되이 보낼 뻔하였다는지, 견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등의 적극적인 표현부터, 자신은 불교에 호의적일 뿐이지 믿지는 않는다는 식의 소극적인 표현에 이르기 까지, 표현은 다양하게 드러난다. 문제는 이 표현이 단순한 표현에 그치는 것인지, 표현 이면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갈등이 내재하는 것인지는 좀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15) 你無執着頑空也。若不見性。則祖師密語。盡成外書。若見性。則魔說狐禪。皆爲妙諦。執則有人我。戒戒之。無有一善從懶惰懈怠中得。勉之哉。(與海眼庚釋, 권21). 海眼庚釋이 서산휴경의 제자인 中觀海眼과 동일인물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민족문화추진회의 주석에서는 동일인으로 취급했지만, 그에 관한 행장이나 기록이 불분명해서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2) <山狗偈>에 나타난 불교 사유와 시선의 흔들림

허균의 문집에는 새롭게 분류해서 편찬한 문체가 있다. 尺牘은 명청소품이 조선에 널리 유행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분야인데, 그것을 문집에 처음 반영하여 편찬한 사람이 바로 허균이다.¹⁶⁾ 일종의 독후감 혹은 독서비평이라 할 수 있는 讀을 설정한 것도 특이한 분류다. 여기서 다룰 <산구계>는 雜文으로 분류되어 있다. ‘雜文’ 안에는 모두 4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분류 제목과는 달리 모두 장편시로 구성되어 있다.

<산구계>는 ‘나’와 ‘개’의 대화로 구성되었다. 앞뒤에 작중화자의 질문과 마무리를 넣고, 본론에 해당하는 가운데 부분은 개의 대답으로 되어있다. 개와의 문답으로 보면 우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는 작품이다.

작중화자가 산중에 있는 절에 갔다가 우연히 거기서 떠돌고 있는 바짝 마른 개를 한 마리 만난다. 개의 전생은 원래 인간이었는데,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아버지옥에 떨어졌다가 오랜 세월 고생한 끝에 드디어 개의 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주로 개가 어떻게 아버지옥에 떨어졌으며, 개의 몸을 다시 받은 뒤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우선 개로 환생하게 된 내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有蔡之纍纍	비루먹은 저 개여
初從何方來	당초에 어느 쪽에서 왔는가.
又向何方去	또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며
何所求所覩	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보는 것은 무엇인가.
蔡請對以臆	“속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吾誣無生忍	저는 無生忍을 믿지 않았었지요.
吾前生爲人	전생에는 사람이었는데
嗜利喜權寵	이익과 권력과 충애를 좋아하고
陷人以刑杖	사람을 형벌에 빠뜨리고
饕餮積貨財	온갖 탐욕으로 재물을 쌓았습니다.
以此獲陰譴	이 때문에 천벌을 받아
墮大何鼻獄	깊은 아버지옥에 떨어져
受苦無量劫	무량겁 동안 괴로움 받다가,
今纔得狗身	이제야 겨우 개의 몸을 얻었습니다.
我懺悔前非	이전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而發大誓願	큰 서원을 냈으니,
不肉不在家	육식도 하지 않고 집에도 있지 않으며
拜佛及菩薩	부처와 보살님께 예배하며
默念阿彌陀	묵묵히 아미타불 염송하렵니다.” ¹⁷⁾

16) 김풍기, 조선 중기 고문의 소품문적 성향과 허균의 척독(<민족문화연구> 제35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참조.

17) 허균, 山狗偈, <惺所覆瓿> 권12. 이후 ‘山狗偈’는 여기서 인용한 것이므로 특별히 표기하지 않는다.

개는 자신이 아비지옥에 떨어진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無生忍을 믿지 않았다는 점과 온갖 탐욕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생인’이란 生滅의 이치를 여인 眞智의 理體를 말하는데, 理體에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¹⁸⁾ 보통 初地菩薩 혹은 七地菩薩부터 九地菩薩에 속하는 이들이 證得하는 깨달음을 말한다. 무생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교에 대한 믿음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 전생에 인간이었을 때 불교를 믿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내세운 다음, 속세의 추악한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연결 시킴으로써 불교가 지향하는 무욕의 세계를 연상케 한다. 그 욕망은 이익과 권력, 임금을 비롯한 윗사람의 총애, 남을 모함하여 벌을 받게 하는 것, 재물욕 등을 말한다. 이 같은 비판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독백으로도 읽힌다. 1599년 황해도사에서 과직되면서 혐의를 받았던 부분이 여러 가지지만, 무뢰배들이나 창기들과 어울린다는 것 외에도 불교의 명호를 부르는 자들을 이끌고 다닌다는 점은 그의 불교적 태도가 이미 조정에서는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과직된 이듬해 서산대사에게 보낸 허균의 편지에는 벼슬을 그만둔 뒤에야 서산대사의 말을 실천에 옮길 것이라는 말이 등장한다.¹⁹⁾

가장 깊은 지옥인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업보는 결국 자신이 만든 원인에 의해 받는다. 무량겁 동안 고통을 받다가 겨우 인간의 몸이 되었는데, 짐승의 몸을 벗어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불과 참선수행이 필수적이라고 했다.²⁰⁾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개는 누구를 형상화한 것일까. 불교를 믿지 않고 온갖 탐욕을 부리다가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윤회하는 중생으로서 최악의 상황이다. 겨우 개의 몸을 받고 환생하여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山狗’는 어찌 보면 속세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개로 형상화했을 뿐이지 개의 행실이나 遊歷하는 곳을 살펴보면 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다.²¹⁾ 육식도 하지 않고 출가한 처지로, 위대한 誓願을 세우고 온갖 명산을 유력하면서 참선을 하는 개는 모든 잘못을 질실히 깨닫고 겸허히 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존재다.²²⁾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²³⁾ 오랜 수행을 거쳐 一彈指에 깨달음을 얻는 것은 선불교의 頓悟나 화엄의 ‘初發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논지와 맥락이 잇닿아 있는 논리다.

허균이 스스로의 표현대로 ‘세상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불교는 어떤 존재였을까. 서산 및 사명당, 해안 등과의 교류 과정에서 보여주는 불교 수행의 경지를 떠올린다면 ‘불경을 몰랐더라면 헛된 생을 보냈을 것’이라는 고백은 그의 속마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대 사회에서 불교는 이단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고, 허균 자신에게는 현실적으로 하나의 장애 요소로 작동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교에 대한 공부를 진술한 것이 자신을 향한 독백인가, 친한 벗에게 하는 것인가, 후원자에게 표현하는 것인가에 따라 그 고백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불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물론 출가를 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불교적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허균은 불교 공부도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관직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기도 했다. 수행과 出仕 사이에서 허균의 자아는 은미한 균열을 일으킨다.

벼슬길에 있는 동안 허균이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내용은 상중에 기생과 놀았다는 윤리적 문제,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 불교의 예를 올렸다는 것 등이다. 불경을 읽고 고승들과 토론하면서 깊은 흥미를 느꼈지만,

18) 한국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 편, <한국불교대사전>(보려각, 1982) 해당 항목 참조.

19) 來示道要, 亦費辭說. 但願空諸所有, 慎勿實諸所無. 任性逍遙, 隨緣放曠. 凡心已盡, 則聖亦何遠? 只恐無相之心, 託境而生也. 然解絃之後, 當踐斯言. 師勿督過. (與西山老師, <惺所覆韻藁> 卷21)

20) 휴정은 자신이 편찬한 <禪家龜鑑>에서 참선과 염불을 중요한 수행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21) 因入聖居山, 遊遊於四方. 金剛洛迦寺, 五臺太白山. 頭流天王峯, 俗離與妙香. 所遇輒參禪, 所居必念佛. (山狗偈)

22) 弭耳若訴愆, 我觀其項牌. 歷歷諸山名, 問僧信不肉, 僧對以信然. (山狗偈)

23) 吾聞釋迦言, 狗于有佛性. 此言誠不誣, 人而不如狗. (山狗偈)

허균에게는 여전히 현실에서의 인간적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된 개의 전생의 잘못, 즉 이익과 권력과 총애와 재산 축적 등은 허균 역시 현실에서 열심히 추구하던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장애가 되어 파직을 당하거나 귀양을 가게 되자 이전부터 읽어왔던 불교적 성향과 만나서 일종의 참회 행위로 표현된다.

<산구계>에서의 ‘개’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고생을 한 탓에 바짝 마른 모습으로 귀를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맹정진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형상은, 초라한 표면적 모습과는 달리 내면으로는 굉장한 수행 이력과 수준을 보여준다. 세속적 욕망을 벗어나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깨달음을 향해서 정진하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치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개’는 부정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긍정해야 하거나 배워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이는 허균이 개의 모습에 자신의 속마음을 반영하여 표현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허균은 자아-주체를 ‘개’라고 하는 대상으로 타자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허균이 ‘개’를 전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우의 대상으로 본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개를 관찰하는 주체로서의 ‘나’가 있기도 하지만, 서술 주체로서의 ‘나’가 마지막 행에서 말하고 있는 바 “사람으로서 개만도 못할 것인가” 하는 진술 때문이다. 개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못한 인간들을 질타하는 말은, 시적 화자가 개를 타자화하여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렇게 본다면 개는 온갖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한 하나의 비교 대상 혹은 기준선으로 제시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산구계>에서 ‘개’를 바라보는 허균의 시선은 어느 쪽으로도 위치시킬 수 없는 흔들림이 발견된다. 말하자면 개는 허균의 자아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관찰하고 대상화하여 타자화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 허균 삶의 한 지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방대한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사유를 접하고 만들었던 그로서는, 현실과 사상적 입장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그가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세상과 어긋났다’고 하는 진술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불교 공부는 경전 읽기와 참선, 승려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서 꾸준히 깊어졌지만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 점은 같은 사안에 대한 글인데도 그 글을 받아 읽을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일정한 편차를 드러낸 이유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산구계>는 개를 등장시켜서 인간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허균 자신의 불교적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계승’인 것이다.

4. 마무리

<山狗偶>는 허균이 주체를 타자화하여 표현한, 일종의 우의적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비판의 대상인 타자를 우의 대상으로 내세워서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는 寓意詩나 寓話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개에 의탁하여 드러내는 托傳과 같은 지점을 보이기도 한다. 주체 혹은 자아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절대적인 외부성을 가지는 자리에 ‘타자’가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산구계>에서 자아와 타자의 미묘한 혼효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타자’를 외부에 위치시키는 ‘나’와, ‘타자’를 욕망하는 ‘나’가 혼효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허균의 불교적 사유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볼 때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다. 10대 후반 仲兄 許篈의 교유 인사들 중에서 고승들과 인연을 맺게 된 이래 많은 승려들과 교유하면서 방대한 불교 서적을 읽었다. 그렇게 불교적 사유가 형성되어 가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글 속에

서는 언제나 흔들리는 자아 혹은 시선의 미세한 흔들림이 포착되었다. <산구계>는 바로 이 맥락 위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 보면 작중 화자는 허균의 자아로 표상되고 개는 외부성을 가지는 타자에 해당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개의 삶은 허균이 지향하는 것이며, 개의 전생은 허균이 현실 속에서 누리거나 욕망하다가 장애로 작동했던 것들이다. 어느 쪽도 노골적으로 편들 수 없는 허균 입장에서는 자신의 불교적 사유를 ‘개’라는 외부를 통해서 타자화한다. 그렇지만 개의 이미지가 단순히 허균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라고 볼 수도 없다. 작품 내에서 명확히 서술 주체가 등장하고, 그의 입을 빌어서 속세의 인간을 개와 비교하면서 반성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허균의 텍스트는 미세하게 삐걱거리면서 사유의 균열을 일으키는 계기로 작동한다. 서술 주체를 허균 자신으로 규정한다 해도 여전히 그는, 수행자의 모습을 지닌 개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서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도 명확히 지지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양쪽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허균 사유의 특징을 발견한다. 그것은 모호성이라는 부정적 성향으로 파악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생각도 자유롭게 받아들이며 내부에서 발효시키는, 그리하여 새로운 사유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의 <산구계>는 이 같은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재욱, 「허균의 불교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김풍기 편역, 『누추한 내 방 : 허균 산문집』, 태학사, 2003.
- 김풍기, 「조선 중기 고문의 소품문적 성향과 허균의 척독」, 『민족문화연구』 제35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 심재룡, 『지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유 정, 『사명대사집』, 『한국불교전서』 제8책, 동국대학교출판부, 1986.
- 이이화, 『허균의 생각』, 뿌리깊은나무, 1980.
- 한국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 편, 『한국불교대사전』, 보련각, 1982.
- 허경진, 「허균이 올린 사명대사 사시에 대하여」, 『동국사학』 제42집, 동국사학회, 2006.
- 허경진, 『허균평전』, 돌베개, 2002.
- 허 균, 『국역 성소부부고』, 민족문화추진회, 1989.
- 허 균, 『惺所覆瓿藁』, 『한국문집총간』 제74권,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1991.
- 휴 정, 『선가구감』, 『한국불교전서』 제7책, 동국대학교출판부, 1986.

Formation of Heo Gyun's Buddhist Ideas and the Discussion on Sanguge

Kim, Pung-gi

Sanguge (山狗偈; The Tale of a Mountain Dog) is an allegorical work of Heo Gyun that portrayed the subject by otherizing it. It has the quality of allegorical poetry or fable that criticizes the people by setting up the other, the target of criticism, as the allegorical character. Simultaneously, it shows the aspects of *takejeon* (托傳), a literary form that expresses oneself through some other character, such as the dog in this case. If we could say that the other exists in the place of absolute exteriority that escapes the eyes of the subject or the self, we could discover a strange mixture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 That is, there is the mixture of the self that places the other on the outside and the self that desires the other.

This could provide some clue as to how Heo Gyun's Buddhist ideas were formed. In his late teens, he read an enormous amount of Buddhist texts when he befriended the Buddhist monks since he came in touch with them as the friends of his second eldest brother, Heo Bong. Hence, his Buddhist thoughts were being formulated, but with the difficulties going on in his real life, they were only captured as the ever faltering self or the shaky perspective. *Sanguge* was created within this context.

On the surface level, fictional narrator is Heo Gyun himself and the dog is a being used to criticize the people. In this context, the life of the dog is what Heo Gyun aims for. He shows the character of the dog to rebuke and warn the people. However, the image of the dog is not used simply to show the internal landscape of Heo Gyun. An obvious narrator appears in the work, and through his words demand people to reflect on things by comparing human with the dog.

This is the point where Heo Gyun's text starts to show ruptures in thoughts. Even if the narrator was defined as Heo Gyun himself, he is still oscillating between the dog as the ascetic and the people who are still confined in their desire. He cannot support one idea clearly, and he simultaneously has both aspects. This reveals the characteristic of his ideas. It is negatively understood as ambiguity, but it is also perceived as an important space where different thoughts are accepted, marinated and the new avenue of thoughts are opened. *Sanguge* is an important work that shows this particular internal landscape of Heo Gyun.

Key words: Heo Gyun, Buddhist ideas, *Sanguge* (山狗偈; The Tale of a Mountain Dog), miscellaneous writing (小品文), literature in mid-Joseon, Buddhist literature